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순회진료버스, 의료격차 없는 KOREA를 달린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7월 28일 오전 10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유영학)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순회진료 버스 출범식' 을 갖고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출범식은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김우경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김영훈 안암병원장 등과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에 출범하는 검진버스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뜻을 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가 무료검진과 진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서는 차량과 의료기기 등 시설을 지원하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순회진료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운영, 의약품 및 전문의료진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출범식에 앞선 지난 23일 비뇨기과 이정구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사회봉사단을 발족하고

이번에 마련된 검진차량을 활용한 순회진료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8월 1일 서울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북부하나센터에서 첫 진료를 시작한다.

순회진료는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집단에게 진료 버스가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과 진찰, 투약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매주 1회씩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주민 진료소, 새터민 지원센터,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등을 방문하여, 진료는 물론, 물리치료, 영양상담, 복지상담 등 다양한 케어 활동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이번에 시작하는 순회진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 순회진료버스를 제작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외국인근로자, 가출 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40회 이상의 순회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5년간 진행되며, 이를 통해 총 15,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원장은 "고려대학교병원이 추구하는 환자최우선의 가치실현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함께 동참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한다" 며 "민족고대의 정신으로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앞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유영학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오늘 출범하는 순회진료 버스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히며, "재단은 앞으로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단순히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돕는 역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는 평생 동반자가 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펼치고 있다. 진료 뿐 아니라 연구 및 교육에 힘쓰며 지역과 사회,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생명존중이라는 의료의 본질을 바탕으로 생명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술을 실천하고 있다. 또 탈북자 코호트 등 그 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통일 한반도에 확대 적용해 KOREA대 표병원으로서의 고려대학교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려대의미인 의학발전기금기부

15.06.10	김중숙	₩ 3,000,000	15.07.06	이천환	₩ 20,000,000
15.06.17	김철민	₩ 6,800,000	15.07.08	민경기	₩ 3,000,000
15.07.06	김해준	₩ 40,000,000	15.07.13	김해준	₩ 7,000,000
15.07.06	김순덕	₩ 40,000,000	15.07.22	강호	₩ 2,000,000
15.07.06	이은일	₩ 40,000,000	15.08.12	이호준	₩ 10,000,000
15.07.06	최재욱	₩ 40,000,000	15.08.12	Marvin Chow	₩ 3,356,484
15.07.06	안형식	₩ 10,000,000	15.08.13	박대진	₩ 1,000,000
15.07.06	윤석준	₩ 10,000,000	15.08.13	홍윤식	₩ 20,000,000
15.07.06	천병철	₩ 10,000,000	15.08.17	의과대학 85학번	₩ 54,000,000
15.07.06	이원진	₩ 10,000,000	15.08.31	최중욱	₩ 5,000,000
15.06.29	이승호(43회)	₩ 3,000,000	15.08.31	의학전문대학원 학부모회	₩ 5,000,000
15.07.01	임춘학	₩ 5,000,000	15.08.31	의과대학 학부모회	₩ 10,000,000

미주지역 기부방법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은 1997년 10월 28일자로 설립되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의무자께서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DRESS 15 Autumn Hill Road, Princeton, New Jersey 08540, United States

EMAIL info@ifku.net (Attn : Wan-Mo Kang, Chairman 1-609-895-6638

wkang@foxrothschild.com)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홈페이지 <http://www.ifku.net>

암 수술 잘하는 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성형외과 윤을식 교수 유방암 아름답게 완치



▲ 고대안암병원 유방암 분야 명의로 꼽히는 정승필 교수(왼쪽)와 윤을식(오른쪽) 교수는 팀워크를 자랑하며 안암병원의 유방암 치료 실력은 완벽한 치료를 위한 다학제 진료에 있다고 말했다.

“믿음주는 병원 찾고 바로 치료에 돌입하는게 중요”

고대안암병원에는 유방암 환우들에게 잘 알려진 두 명의 명이가 있다.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와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다. 한국에서의 유방암은 40대 이하 젊은 환자가 주를 이루고, 암 발생 초기단계의 조기유방암 환자가 많다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이런 배경에 한국의 젊은 유방암 환자는 ‘암환자 였다’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싶지 않아 근치적으로도, 미용적으로도 완벽한 치료를 받고 싶어진다.

◇ 정확한 진단 ·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택하라


유방내분비외과 정승필 교수는 한국의 유방암 특수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을 세운다. 근치적으로 치료하되 치료에 따른 여성의 삶의 질 저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유방보존술 직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치료법은 완전 절제술과 동일한 치료효과를 보인다. 재발률이 낮고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현재 조기유방암 표준 치료로 유방보존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과의사인 그는 미용적인 부분보다 완벽한 암의 제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용학적 이유로 무조건 유방보존술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 유방의 크기 등을 보고 유방보존술 여부를 결정한다. 재발률이 없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 때 유방보존술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유방암 완치를 위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 삶의 질을 고려한 다학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암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병원쇼핑 현상을 빚대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어딘지, 명이가 누군지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형 병원 두 곳 이상을 다니는 동안 환자는 첫 진단 후 1~2개월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처음부터 믿음이 가는 병원을 찾고 바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빠른 암수술을 표방하는 최근 의료 트렌드와 달리 고대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찾은 그 날부터 열흘 정도의 시간에 걸쳐 진단과 수술 등 암 치료에 필요한 전 과정이 이뤄진다. 정 교수는 “우리는 진단 후 수술까지 열흘 이상의 시간을 갖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방침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드린 후 수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 여성암환자 입장을 고려한 최소 침습 ‘유방재건술’

고대안암병원엔 종양성형술(Oncoplastic surgery)을 도입한 의사가 있다.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는 종양제거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수술 이전과 동일한 가슴을 만들어준다. 종양학적 안전성을 보장한 재건술은 젊은 유방암환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윤 교수는 “자가 조직으로 유방을 재건하는 방법은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에 비해 수술 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예후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로봇을 이용해 등에서 유방재건에 필요한 조직을 얻는다. 그는 “자가 조직을 떼어낸 부위에 물이 차는 등 보통의 경우 합병증이 남지만 로봇을 이용할 경우 절개 부위가 없어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성공적인 유방재건술에 있어 외과와 성형외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양 절제 후 재건을 받을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팀이 수술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합병증 가능성 등으로 환자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 있다. 본원에서는 유방암 명의들이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통해 최상의 치료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병동, 아이 눈높이 맞춘 리모델링 진행해 환자최우선 병동으로 탈바꿈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이 소아병동을 아이 눈높이에 꼭 맞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8월 11일 오후 4시 오픈 행사를 실시했다.

아이들에게 항상 공포의 대상이 되는 병원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계획한 고려대 안암병원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실시해 가장 불편한 점, 개선되면 좋을 점 등 환자의 페인 포인트를 찾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최적화된 배치와 구조를 설계했다. 환자는 물론 보호자의 선호까지 파악하고 적용해 최상의 어린이 병동을 완성한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병동 디자인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가장 중요시 여긴 요소는 환자의 편안한 병동생활이다. 이에 가장 큰 변화는 병실의 규모이다. 기존에 6인실로 운영되고 있던 병동을 과감하게 5인실로 만들고 아이들 유모차, 환자의 개인물품을 놓는 등 여유 공간을 만들어 보호자들이 넓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또한 1인실이 있던 공

간은 전문 의료진이 늘 상주해있는 상담실로 전환해 보호자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건강과 병동생활을 상담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장소는 처치실과 화장실이다. 스테이션 옆에 바로 놓여있는 처치실과 화장실은 리서치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한 점을 적극 반영해 개선한 사례이다. 처치실은 아이들에게 항상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이다. 치료 받기 전 울음을 터뜨리며 치료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동물원' 컨셉을 녹여내어 처치실을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닌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처치실에 들어서는 문 뿐만 아니라 내부 천장, 벽 등에 모빌, 동물 그림이 부착된 창문 등을 배치해 아이들이 처치실 안에서 놀이 공간으로써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다.

화장실도 아이와 보호자의 동선을 고려해 가장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기존에 병동과 병동 사이에 화장실이 위치해있어 보호자들이 아픈 아이를 두고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린넨실로 이용되고 있던



공간을 화장실로 재배치하여 보호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특히 기존의 소아병동, 53병동이었던 이름을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도담도담 튼튼누리'로 지정했다. 아이들이 무탈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는 소아병동 의료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

리모델링 오픈 행사에 참석한 김영훈 병원장은 "새로운 옷을 입은 소아병동의 곳곳에 환자와 보호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한 많은 요소들이 보인다. 소아병동은 고려대 안암병원의 미래이다."며, "병동 리모델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 1월 암치유 병동인 희망병동을 시작으로 환자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도담도담튼튼누리 소아병동으로도 이어졌다. 앞으로도 내 집보다 편안한, 진정한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병원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내원객 편의 증진 한층 더 UP! 비즈니스룸 오픈!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이 내원객 및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3층 로비에 비즈니스룸을 구축하고 7월 27일 개소식을 시행했다.

바쁜 일정을 쪼개어 방문한 환자 및 보호자들이 간단하고 빠르게 업무처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 받을 수 있도록 3층 로비의 원내약국 옆에 설치된 비즈니스룸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더욱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내원객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비즈니스룸에는 공용 PC 3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료로 인터넷 사용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무료 휴대폰 급속 충전기, 원내 전용 전화 비치 등 내원객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적극 반영되어 있어 고객 중심 마인드와 환자최우선 가치를 한층 더 실현시켰다. 특히 사무환경 통합 관리 전문 기업인 캐논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설치된 무인과금 복합기는 인쇄, 복사, 스캔, 팩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상주 직원 없이도 내원객 스스로 이용이 가능해 더욱 유용한 편의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안암병원장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꼭 필요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항상 고심하고 있다."며, "비즈니스룸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병원을 이용할 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문의사항은 맞은편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프로젝트 : 생생건강 365

철저한 위생을 통해 면역력 증가



미세먼지 등이 맞물려 면역력이 쉽게 약해질 수 있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개인위생을 비롯한 주변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손 씻기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는 부분으로, 손은 각종 유해 바이러스 및 세균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다녀온 뒤에는 비누를 묻혀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흐르는 물에 손을 구석구석 잘 씻어야 합니다. 씻기가 어려운 경우,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손수건 보다는 일회용 화장지를 통해 탐이나 기침, 가래 등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환경을 청결히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선 실내 청소 시에는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 후 물걸레를 이용해 가구를 포함한 집안 구석구석의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특히 문고리나 손이 자주 닿는 부위에는 하루에 수회 소독을 하고, 침구류나 의류는 삶아 빨은 뒤 햇볕에 바짝 말리면 좋습니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이럴 때 스케일링 받자!



치주염이 없는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있고 칫솔질을 잘하고 있다면 스케일링은 6개월에서 1년에 이내에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잇몸은 건강하면서 잘 닦지 못한 경우라면 6개월 이내로 받아야 하며, 치주염이 있다면 3개월에 한 번 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스케일링 받을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칫솔질할 때 피가 나는 것은 치은염의 주된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피가 난다면 치과에 방문해 치석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곤하면 잇몸이 부었다가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잇몸 건강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 또한 치주염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 역시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 지속 교수

소이증, 귀 재건 수술로 완치



소이증은 선천적으로 귀의 형태가 거의 없거나 귀의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질환으로, 태아가 자라면서 귀의 생성점 부위에 이상이 생겨 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인데, 신생아 7,000~8,000명 중 한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한쪽 귀에서만 나타나고 전체 환자의 5%정도에서는 양쪽 귀에 나타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귀의 귓구멍이 없고 귓불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상인의 절반이하의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재건 치료는 수술로 이뤄지는데 주로 가슴연골을 떼어 귀 모양으로 조각하고 이것을 기형부위에 이식하여 귀를 만들어 줍니다. 수술은 보통 2~3회 정도로 나누어 이뤄지고 첫 수술부터 완치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외형적인 수술 뿐 아니라 기능적인 재활이 필요하고, 청력개선을 원하는 환자에 한해 이비인후과의 협진을 통해 정상인의 절반에 불과한 청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철 교수

눈 건강 위협하는 안구건조증 주의



눈은 적당한 양의 눈물이 안구를 적셔 눈꺼풀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눈물 속에는 여러 항균 성분이 있어 눈에 침입한 병균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다 뜰 때도 뻑뻑하거나 가렵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이런 기능을 하는 눈물의 생성이 적어지면 안구의 표면이 건조해져서 눈이 시리고, 충혈도 잦고 침침해지는 등 안구 건조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건조한 환경과 찬바람 뿐만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의 생활패턴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평소에 주변 습도를 높게 유지하고 적절한 안약이나 안연고를 사용하면 충분히 증상 호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눈물분비도 저하되듯이, 과로나 과음 및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라도 증상의 악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인공누액의 사용 횟수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약마다 성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누액은 눈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 아니라 부족한 눈물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염증 치료 등을 위해 안과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강수연 교수

KUMC NEWS

**새 단장한 종합건강진단센터!
안락하고 고급스러움이 물씬~**




고려대 안암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소장 임도선, 순환기내과)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쾌적하고 안락한 건강진단센터로 새단장했다.

안암병원 입구 3층 로비에 자리 잡고 있는 종합건강진단센터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를 갖춰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운 가구를 도입하며 재배치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이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목했다. 적절한 조도를 맞춰 너무 밝지 않고 편안하게 내원객이 쉴 수 있도록 하여 따뜻함을 자

아내 치유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동선을 배려한 가구 배치 등으로 그저 건강검진을 위해 기다리는 공간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자리로 조성했다. 특히 미적인 색상 조합으로 멋스러움을 한층 높였고, 그 외 커튼, 소파, 쿠션, 조명, 테이블 등 인테리어와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건진 공간으로 완성했다.

호텔 라운지와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기며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자아내고 있는 종합건강진단센터는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은 물론 지속적인 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건진 시스템으로 내원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2015 장기이식심포지엄 개최,
3개병원의 시너지 기대**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우경)은 지난 7월 24일 오후 1시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대한이식학회와 함께 '2015 고려대학교의료원 장기이식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초로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의 장기이식센터가 함께 준비한 자리로, 안암병원 간이식 100례를 계기로 의료원 내 협력을 촉진하고 시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4개의 주요 세션으로 이뤄진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우경 의무부총장, 송태진 연구처장, 김영훈 안암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원 주요 인사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정 이사장, 아산의료원 이승규 의료원장 등 의료계인사 등 200여명의 국내외 장기이식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강연과 토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는 고려대의료원 장기이식의 역사와 현재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이식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인 장기기증과 뇌사자 관리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이식 분야의 연구개발을 집중 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전망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김동식 센터장의 진행으로 '고려대의료원 장기이식의 비전 2020'을 선포하고 행사를 기념했다. 

**안암병원 지표발표회 성료,
우수지표 포상 및 담당자 격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이 7월 24일(금) 문숙의학관에서 지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김영훈 병원장, 정광운 진료부원장, 김신곤 기획실장, 손장욱 OPS관리위원장, 김호용 경영관리실장, 조운수 간호부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각 지표담당자가 참석했다.




각 지표담당자는 지표 추이 및 변동과 개선 활동 사항을 발표했고, 우수지표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우수지표는 지표선정의 명확성과 타당성, 원인분석과 활동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목표대비 결과의 성취율과 파급력 등으로 선정됐다. ▲낙상예방 간호 활동(간호부), ▲안전한 일터 만들기(건강관리실), ▲수술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보험심사팀), ▲약품공급망 관리(약제팀), ▲Critical Value Report 지침 수행률(영상의학과)이 우수지표로 선정되어 표창장과 포상금이 수여됐다.

김영훈 병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지표는 환자 안전을 위해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병원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들이 지표관리에 동참하도록 각 지표 담당자들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역시 여름엔 수박! 더위야 잘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이 7월 23일 중복을 맞이해 여름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박을 전 직원과 함께 나눴다.

김영훈 원장은 수박에 '메르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메시지를 담아 각 부서의 교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수박을 선물 받은 직원들은 "뜨거운 날씨에 바쁜 업무로 지치고 힘들때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으로 더위가 한결 가시는 것 같다. 부서 분위기도 한층 가벼워지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먹으니 더욱 맛이 일품이다." 고 소감을 밝혔다. 

고대병원, 베트남 암환자 치료에 물꼬 터




최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2015 베트남 암환자 상담회에 참여해 현지에서 상담 및 교류활동을 펼쳤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자혼인터내셔널이 주관한 이번 상담회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을 비롯한 4개의 한국 의료기관과 2개의 베트남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베트남 암환자 및 보호자들, 한국과 베트남의 의료진 및 관련 주요인사를 비롯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방문 기간동안 베트남 암환자를 대상으로 상담회를 갖고, 한국-베트남 암 전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했으며, 현지 방송매체와 인터뷰, TV프로그램 출연 등 다각도의 활동을 펼쳤고 현지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현지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승필 교수는 "베트남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 및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조기검진과 다각적 치료에 대해 베트남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양국의 유방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국가를 뛰어넘은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산부인과 이상훈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부인암 예방프로그램과 치료의 우수성에 대해 소개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에 매진해 왔다. 해외 재난구호와 지역봉사활동 등 어둡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의료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환자최우선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환자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고 고려대 안암병원을 통해 새로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과 별	의 사 명	오전	오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	의 사 명	오전	오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 센터 3층 ☎6551	*류 호 상	화,목	화,목	위장관질환,간질환	호흡기내과 2층 ☎5111	*인 광 호	월,수,목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김 창 덕	수,금	월,목	담석,담도암,췌장염,췌장암		*이 상 업	월,화,목	수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엄 순 호	월,수,금	수	간질환(간염,간경변,간암)		*이 은 주	수,금	월,수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수오후:폐섬유화증,간질환 폐질환환자만 진료)			
	*전 훈 재	화,목,금	금	위장관양성질환,식도암,위암,대장암		정 원 재		화,금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이 흥 식	월,화,목		담석,담도암,췌장염,췌장암,위장관질환		최 수 인		목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진 윤 태	화,수,금	화	위장관질환,소화기 암,염증성 장 질환		흉부외과 2층 ☎5436	*김 광 택	화,수		폐,기관지,식도외과,다한증,하지정맥류		
	*서 연 석	월,목,토	월,금	간질환(간염,간경변,간암)[매주토오전:2주]	선 경 토				심장,혈관외과,인공심장 (매월 첫째주 토요일 진료)			
	*금 보 라	월	수,목	위장관양성질환,식도암,위암,대장암	*이 성 호		목	화	흉곽기형,폐,식도질환,하지정맥류			
	*김 은 선	수	월,금	위장관질환	*손 호 성		월,금		심장(관상동맥,판막),혈관질환,심장이식			
	*최 혁 순	화	화,목	위장관양성질환,식도암,위암,대장암	김 태 식			목	중환자관리,심장이식,심장및폐,능막질환			
	임 선 영	수,토	화,수	간질환,위장관질환(간염,간경변,간암)	*정 재 승			수,금	대동맥,관상동맥,말초혈관질환,심장판막,심장이식			
	김 승 한		금	위장관 및 간,췌담,모든질환	*김 희 중			월,금	심장 혈관질환			
	안 잼 마	토	수	위장관질환,간질환,췌담도질환[토오전:2주]	*정 재 호			월	일부흉부질환,흉부외상			
	이 재 민	토		위장관 및 간,췌담,모든질환[토오전:5주]	외과 3층 ☎5401	*김 종 석	수	월	위암,상부위장관질환			
유 인 경	토		위장관질환[토오전:4주]	*박 성 흠		월	목	위암,상부위장관질환				
김 태 형	토		위장관질환[토오전:1주]	*박 성 수		금	수	위암,상부위장관질환,비만대사수술				
내과 3층 ☎5410	신장	*조 원 용	수,금	월,수		고혈압,신장질환	*서 성 옥	월,수		간,담도,췌장질환		
		*조 상 경	화,목	수,목		고혈압,신장질환	*송 태 진	목		간,담도,췌장질환		
		*김 명 규				해외연수(2015.08.10~2016.08.31)	*김 동 식	화,금		간,담도,췌장질환,간이식		
		임 성 윤	월,금			고혈압,신장질환	*유 영 동		월,목	간,담도,췌장질환		
		양 지 현	화	금		고혈압,신장질환	정 성 원		수,금	간,담도,췌장질환		
	감염	*김 명 규	수			신장이식	한 재 현		화	간,담도,췌장질환		
		*김 민 자	수,금	월		감염질환,림프절클리닉,열병클리닉	이식관 소아 ☎5401	*정 철 응	화,목	목	장기이식(신장,췌장),혈관질환,췌장질환,하지정맥류 (목요일은 신장이식 환자만 진료)	
		*손 장 옥	월,목	화		감염질환,림프절클리닉,열병클리닉		*전 흥 만	월,금		혈관질환,하지정맥류,장기이식(신장,췌장)	
		*윤 영 경	화	수,금		감염질환,림프절클리닉,열병클리닉		*부 윤 정	화,목	화	소아외과,탈장(화요일:소아청소년과)	
		*백 승 희		목		감염질환,림프절클리닉,열병클리닉		대장항문 외과 2층 ☎6420	*김 선 한		월,수	대장,직장,항문질환
혈액	*박 용	목,토		빈혈,자반증(영)클리닉[토오전:2주]		*김 진	금		화	대장,직장,항문질환		
	강 가 원		금	빈혈,자반증(영)클리닉	*곽 정 면	월,목			대장,직장,항문질환			
류마티스	*지 종 대	목,금	월,수,금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백 세 진	수	금		대장,직장,항문질환,여성전문,염증성 장질환			
	*이 영 호	월,화,수	화,목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곽 한 덕		목		대장,직장,항문질환			
내과 일반의				월~금	월~토		내과질환		*강 동 우	화		대장,직장,항문질환
당뇨센터 (내분비내과) 3층 ☎5421	*최 동 섭	화,목,금	목	내분비	유방내 분비 외과 2층 ☎6670	*배 정 원	월,목		화	유방암 및 갑상선암		
	*김 신 곤	월,수	수	내분비		*정 승 필	화,수,금		월,수	유방 및 갑상선 질환		
	*김 희 영	화	월,수,금	내분비		정형외과 3층 ☎5430	*채 인 정		목	화	무릎,인공무릎관절,관절경,척추 (목오후:3~5시 block 시술)	
	안 지 현	월,목,토		내분비[오전:2주]			*이 순 혁		수	월	소아정형외과,사지연장술,족부	
	*김 남 훈	금,토	화,목	내분비[토오전:1주]	*박 종 훈		화		중앙,외상(수요일 암센터 진료,근골격계 중앙)			
	김 선 화			분만휴가(2015.07.13~2015.10.16)	서 승 우		화	척추측만증,소아척추				
	김 경 진	수,금		내분비[토오전:4주]	*박 종 응	월	수	수부외과,미세재건외과,수부및상지외상, 말초신경질환(악성 흑색종 클리닉, 손목통증클리닉,수부외과 미세재건외과 클리닉)				
암 센터 2층 ☎5510	종양 혈액 내과	*김 열 흥		월,목	위암,소화기암,항암치료	*한 승 범	월,목	목	인공관절(무릎,고관절),고관절골절,외상			
		*신 상 원	수,목	화	두경부암,폐암,호스피스	*박 시 영	수	월,수	허리,목디스크,척추협착증,골다공증,외상학, 외상성 척추질환,척추측만증 및 변형 교정 (화요일:11시 이후)			
		*김 병 수	화,금	수	혈액암(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식,혈액질환	장 기 모	화,토	목	슬관절,슬관절관절경술,스포츠헬상, 인공슬관절 치환술,인대재건술[토오전:2주]			
	방사선 종양 학과	*박 경 화	월,목	화	유방암,부인과암,비뇨기암	박 지 순	금,토	화,금	어깨통증[토오전:4주]			
		*박 용	월		혈액암(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식,혈액질환	김 동 민		금	수부질환,미세수술,수부 및 상지외상[토오전:1주]			
정형외과 소아 청소년과	최 윤 지	화,금	목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이 종 희	금		고관절,슬관절,외상[토오전:1주]				
	장 원 진	화	수,금	고형암의 항암화학치료	일 반 의		수,금	외상				
	강 가 원	수	월		신경외과 3층 ☎5550	*정 용 구	수,목	화	뇌종양,척추종양,뇌혈관질환,두통			
	*김 철 응	화,목,금	월,목	소화기암,두경부암,유방암		*박 정 율	월	월,목	통증외과,척추질환,신경기능이상,노인질환			
*박 영 제	화,수	월,화,수,목	뇌종양,부인암,비뇨기암,폐암,림프종,소아종양,육종	*강 신 혁		월,목	목	뇌종양,소아뇌질환,뇌혈관질환,두통,안면경련				
이 남 권	월,수	화,수,금	방사선 종양학	*이 장 보		화	화	척추질환,척추외상,척추종양				
일 반 의		화,금	종양학	*박 동 혁				연구년(2015.08.01~2016.08.31)				
심혈관 센터 4층 ☎6700	순환기	*심 완 주	월,목	화,수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수요일은 초진만)	*박 경 재	화,금		뇌혈관 조영술 및 뇌 두경부 중재시술, 뇌혈관 질환(뇌동맥류),뇌종양,안면경련, 삼차신경통		
		*김 영 훈	금,토	화,금		부정맥,심박동기&제세동기(토요일은 초진만) (화,금 오전은 대진)	허 준 석		금	척추질환,두부외상		
		*임 도 선	월,화,수	월		협심증,심혈관중재시술(화요일:초진만)	성형외과 3층 ☎5440	*박 철	월,금		귀성형,소이증,매몰귀	
		*유 철 응	월,수,목,토	수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판막질환,말초혈관 (목:말초혈관질환만/토:초진만)[토오전:2,5주]		안 덕 선		수	손저림증,화학박피	
		*홍 순 준	목	화,목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심장판막질환		*박 승 하	금	화	소아기형,안면마비,턱성형,눈성형,보톡스, 필러,레이저피부성형,주름성형,혈관종	
		*박 성 미	화,수,금,토	수	고혈압성심장질환,여성심장질환,협심증,저혈압, 호흡곤란(수요일,토요일은초진만)	*이 병 일		월,수		안면외상 및 윤곽성형,눈,코,주름성형, 유방암재건(근육보존),유방미용성형		
		*최 종 일	수,목	월	부정맥,동원심장마비,실신,유전성심장질환	*윤 을 식		화,목		유방재건및성형,지방성형,눈,코, 주름성형,수부재건,암재건,레이저		
	*박 재 형	금	수,금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	*김 현 석	월		수,목	악안면외상재건,수부외상재건,눈성형, 지방성형,흉터성형,피부암			
	*심 재 민	월,금,토	화	부정맥,심박동기&제세동기,실신,급사 (토요일은 초진만)[토오전:4주]	일 반 의	수,금		월~금	외상			
	김 미 나	수,토	금	심장질환,심장이식,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토오전:5주]	특수 클리닉	고혈압, 심부전클리닉			심완주,박성미,김미나			
	이 대 인	화	금	심장질환,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부정맥클리닉,인공심박동기&제세동기클리닉			김영훈,최종일,심재민,이대인,노승영,김동혁,안진희			
	*주 형 준	토	목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고혈압[토오전:1,5주]		홍통 클리닉			임도선,유철응,홍순준,박재형,주형준,조재영			
	노 승 영	화	목	심장질환,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클리닉			유철응			
	김 동 혁	금	수	심장질환,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조 재 영	금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고혈압									
안 진 희	월		심장질환,고혈압,심부전,심장판막질환									

“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민족 아픔까지 생각하죠 ”

고려대 안암병원 사회봉사단 발족



▲ 고려대안암병원, 국내 최초로 새터민 등 소외층 대상 사회공헌

고려대 안암병원이 지난달 사회공헌 활동(CSR)을 전담할 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CSR 활동을 위해 의료기관이 전담 조직을 꾸리기는 안암병원이 처음이다.

안암병원은 또 순회진료 대상자를 우리 사회 대표적인 의료소외 계층인 외국인노동자와 새터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으로 압축하고, 해마다 40회 이상 순회진료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순회진료로 대표되는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병원은 지난 1일 '꿈씨 버스' 라는 애칭이 붙은 순회진료 버스를 앞세우고 서울 공릉종합사회관 북부하나센터를 찾아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첫 순회진료를 펼쳤다.

김신곤 고려대안암병원 기획실장(내분비내과 교수)을 지난 5일 만났다. 김 교수는 안암병원이 CSR 활동에 열정을 쏟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병원, 그 이상의 가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병원의 으뜸 가치이다. 안암병원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인증 획득과 재인증 획득,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선정 등을 통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공인 받았다. 안암병원은 이에 더해 또다른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유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병원의 기본 책무”라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병원을 찾기 힘든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 긍정적인 건강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대의대의 역사도 민족의 아픔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화답하기 위한 노력들로 시작된 것이었다”며 사회공헌 활동이 고대의 역사와 전통과 맞닿아 있음을 비쳤다.

김 교수가 말했듯 안암병원의 사회활동은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껴안으려는 노력이다. 안암병원 사회봉사단의 캐치프레이즈는 ‘좀 더 멀리, 좀 더 가까이’. 순회버스에는 고려대의료원의 영문 표기인 ‘KUMC’의 한글 발음을 살짝 비튼 ‘꿈씨’라는 별칭이 붙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의료 소외계층을 찾아 긍정과 희망을 메시지를 전하고 널리 퍼뜨리겠다는 꿈을 담았다. 김 교수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사람 중 1%는 병원을 찾고 싶어도 돈이 없어 치료 못 받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에 미아 지역의 한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나중에 보니 돌아가신 지 며칠이 지난 뒤였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이라고 했다.

안암병원 순회진료의 주요 대상자는 새터민들이다. 안암병원 순회진료가 또다른 형태의 민족 아우르기임을 드러낸다. 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일 이주민’이라고 나는 부른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통일이란 뜻에서다. 이분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우러지느냐에 따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미래가 달랐다”고 생각을 밝혔다.


안암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새터민 대상의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해 왔다. 이 병원의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새터민 수는 1,000명을 헤아린다. 그것도 단순한 건강상태 체크에 그치지 않고 한 명 한 명 상태를 추적해 상태가 점점 더 나아지도록 이끈다. ‘통일의학’의 디딤돌 쌓기를 위한 것이다. 통일 이후 한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한 장기 포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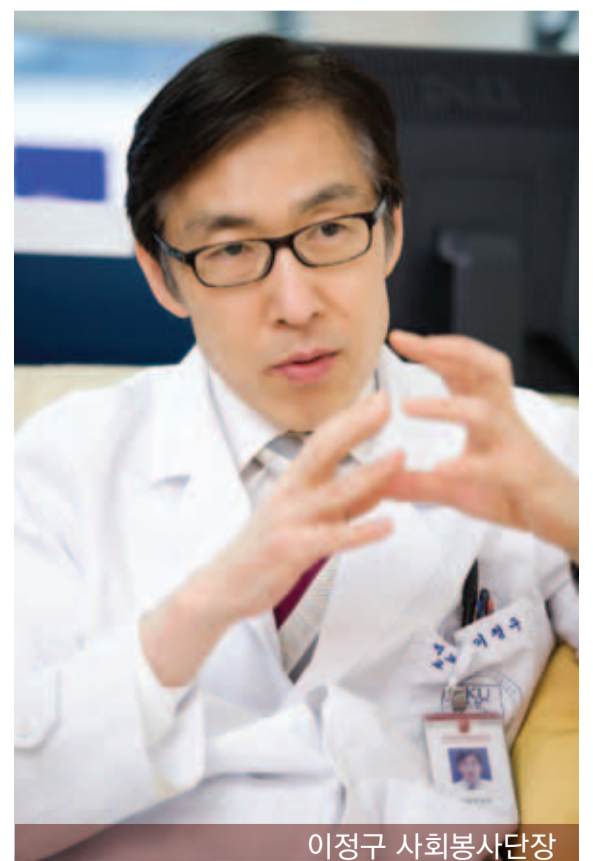
김 교수는 북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대북 보건의료 교류가 장비와 약을 주는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예전 북에 결핵 약을 지원했는데 시혜적 일회성

지원에 머문 결과 결핵에 대한 내성만 잔뜩 키워 사망자만 대거 양산하는 역효과만 볼렀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북 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다. 당뇨병 전문의인 김 교수는 지난 2월 고려대 의대가 개최한 통일의학심포지엄에서 북한 이탈주민 코호트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발표해 반향을 불렀다. 남북간 의료격차 줄이기에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일 이후 북 주민들을 가장 괴롭힐 질환은 감염질환이 아니다”라면서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과 같은, 빈곤과 풍요가 만나 문제가 되는 생활습관병이 최대 복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암병원 사회공헌 활동은 자발적 참여로 굴러간다. 안암병원이 지난 달 사회봉사단을 꾸리기 위해 무료 봉사단원을 모집했는데, 100명이 몰려 들었다. 김 교수는 “사회공헌은 그동안 조직화만 안됐던 것 뿐이지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를 실천해 오면서 열정을 간직한 분들이 무척 많았던 것”이라고 했다. 안암병원이 매달 진행하는 교직원 월급 끝잔성금 모금에는 매번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이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빛을 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맹위를 떨치던 당시 이 병원은 전 직원의 방역 활동 참여로 ‘청정지역’으로 지켜냈다는 후문이다. 이 병원 흉부외과와 호흡기내과 교수는 메르스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지원근무에 나서 인술을 펼쳤다. 특히 인공신장실의 한 간호사는 퇴직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임에도 메르스 지원근무를 자청하고 나서는 인간애를 실천해 화제를 모았다. 



이정구 사회봉사단장